**로저 그린 박사, 미국 기독교,
세션 20, 미국의 사회 복음,
2부**

© 2024 Roger Gree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미국의 기독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저 그린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0, 미국의 사회적 복음, 2부입니다.

좋아요, 저는 강의 요약의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있고, 우리는 거의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월터 라우센부시에 대한 개요를 제공했고, 여러분은 라우센부시의 에반스 전기를 읽고 있을 테니, 아마 여러분은 지금까지 두 번 정도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전기를 장마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월터 라우센부시는 미국 기독교에서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재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그의 삶 등에 대해 많은 것을 했고, 우리는 여전히 A에 있고, 우리는 여전히 월터 라우센부시에 있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다음 사회 복음의 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회 복음이 미국 기독교에 기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Rauschenbusch와 함께 우리가 있는 곳은 우리가 그의 작품에 정말로 있고, 우리는 정말로, 제 생각에는, 네, 여기에 그가 1907년에 쓴 작품인 기독교와 사회적 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마 이번 주에 기독교와 사회적 위기를 읽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기독교와 사회적 위기에 대한 다섯 가지 기본 요점을 알려드린 것이고, 마지막 요점은,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나요? 거기서 멈췄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책과 라우센부쉬가 책에서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몇 가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인 사회 복음 신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와 사회 위기(1907)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로 신의 왕국이라는 개념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라우센부쉬의 책, 글, 가르침에서 핵심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려는 것은, 그는 신의 왕국의 언어를 현대 세계, 20세기에 가져오려는 것입니다. 그는 20세기 교회가 신의 왕국이 지금 20세기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물론 그는 그것을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로 봅니다. 신의 왕국이 가까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그래서 라우센부쉬는 책에서 그 위대한 메시지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책에서 1907년이라는 날짜가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이 세상의 악을 완화하고, 악과 싸우고, 악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일에 대해 높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문자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교회의 일에 관해서 침례교와 감리교와 같은 더 민주적인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침례교와 감리교가 가장 원시적인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때때로 계층적 교회를 약간 공격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와 국가에서 이런 종류의 민주적 충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사회적 위기.

저술 날짜는 매우 중요합니다. 좋아요, 책 자체에 대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Rauschenbusch가 책에서, 그리고 다른 책에서 쓴 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 연구나 종교와 윤리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 종교, 윤리. 그는 그것들을 모두 하나로 모으려 하고 있어요 . 그는 그런 종류의 일체형을 그의 가르침에서 만들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책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저를 기독교 신학 수업에 초대했다면, 제 교수 중 한 분이 모든 좋은 신학은 윤리로 끝난다고 말씀하신 것을 아실 겁니다. 글쎄요, 그게 사실일 겁니다.

Rauschenbusch는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모든 좋은 신학은 윤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기록과 종교에서 나오는 윤리적 명령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라우센부쉬에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라우센부쉬의 책 한 권을 읽을 거라면,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기독교와 사회적 위기. 또한 두 번째 책, 사회 복음을 위한 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제, 그가 그것을 쓴 시점을 주목하세요, 1917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 1차 세계대전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복음의 신학.

좋아요, 이 책에서 라우센부쉬가 해야 할 일은 악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는 1차 세계 대전이 문화와 기독교에 끼친 현실과 혼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1907년에 그가 한 말이 1차 세계 대전을 겪고 있는 지금 에 비하면 매우 낙관적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이 책에서 그는 정말로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이제, 그가 말하는 것을, 만약 당신이 Rauschenbusch를 Lincoln과 비교한다면, 매우 흥미로운 비교와 대조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Abraham Lincoln과 함께 남북 전쟁이 남북 전쟁의 이유를 찾는 쉬운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보는 건 쉬운 방법이에요. 하지만 링컨이 남북전쟁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한 뉘앙스는 일종의 기업적 죄책감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회개와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글쎄요, 라우센부쉬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는 완전한 악이 한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나라에 걸쳐 있을 만큼 충분한 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걸쳐 있을 만큼 충분한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업의 악에 대한 궁극적인 악의 원인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17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악을 궁극적으로 일으킨 두 가지, 사회 복음의 신학을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부당 이득에 대한 욕망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획득하지 못한 이익에 대한 욕망. Rauschenbusch는 또한 모든 국가가 획득하지 못한 이익에 대한 욕망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획득하지 못한 이익이며, 그들은 다른 국가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이익을 탐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우센부쉬에 관한 한 그것은 문제가 있고, 모든 나라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언급한 두 번째 것은 제국주의 세력이었습니다.

제국주의적 세력. 모든 나라는 그런 종류의 제국주의와 식민지화에 대한 욕망을 공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나라가 한 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그런 종류의 기업적 악에 대해 공유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회 복음 신학의 시작은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돈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가졌던 희망적인 표지판 중 일부를 파괴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Rauschenbusch가 말했듯이, 1907년에 가졌던 표지판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처리해 봅시다.

좋아요, 그럼 이제 그가 가는 책에 대한 또 다른 점은, 지금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돈에도 불구하고, 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휩쓸려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을 회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이 아무리 나빠 보여도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왕국 주제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학 과정에서 시도하는 것처럼, 성경은 선과 악의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어느 쪽이 이길지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이길까요, 아니면 악이 이길까요? 글쎄요,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건 성경 기록이 아닙니다. 그건 라우센부쉬의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악을 이긴 신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신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라우센부쉬가 생각하기에 그 희망은 신의 왕국에 대한 희망이 성경 자체에 내재된 희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희망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때,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또한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복 과정에서 특히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는 국제 관계를 기독교화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기를 원했던 한 곳은 정치권과 국제 정치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전쟁이 끝난 후 기독교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1917년입니다.

그는 1918년에 죽었어요, 기억나세요? 하지만 그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국제 관계에 들어가 기독교 메시지를 더 광범위한 문화에 적용하는 데 좋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Rauschenbusch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희망적인 책이고 분명히 사람들이 이것의 반대편으로 가려고 할 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럼, 라우센부시입니다. 이제, 라우센부시로 마무리하기 위해 언급하지 않은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워싱턴 글래든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Adolf von Harnack이나 Joshua Strong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냥 적어두고 싶을 만한 이름이 몇 개 있습니다: von Harnack과 Strong. von Harnack은 둘 다 Berlin University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Strong은 미국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기독교적 가치가 개인에게 주입될 수 있고, 따라서 더 넓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폰 하르낙과 스트롱은 모두 그것에 대해 크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적 가치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런 다음 개인을 통해 국가적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Rauschenbusch가 바랐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일종의 일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Washington Gladden이 Rauschenbusch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일찍 언급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Rauschenbusch의 삶에 대한 작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장씩 읽지 않는다면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기말고사에서 책에 나오는 내용이 많으니까 시작하세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위해 그 책을 정말, 정말 잘 알고 싶어요. 그의 삶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그의 삶, 그의 사역, 그가 무엇에 대해 했는지, 그가 글을 쓰고 설교하고 가르치도록 동기를 부여한 것, 등등.

뉴욕에서 11년을 보낸 뒤 로체스터로 돌아온 걸 기억하세요? 네, 그는 도우미와 함께 가르쳤지만 여전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우미는 그가 말을 잘 하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에게 질문을 주고, 때로는 적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우미가 있었고, 대규모 그룹에서도 꽤 잘 통하는 듯했습니다. Rauschenbusch는 매우 유명했기 때문에, 그가 와서 연설하거나, 설교하거나, 연설하거나, 그의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의 요구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Rauschenbusch와 그의 삶에 대한 다른 내용. 좋아요, 전기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전기입니다.

좋아요, B번, 사회 복음의 신학입니다. 라우센부쉬가 이걸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사회 복음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사회 복음에서 나온 신학은 무엇일까요? 숫자 C는 사회 복음이 미국 기독교에 기여한 것입니다. 좋아요, 우선, 사회 복음 신학 목록의 맨 위에는 우리가 이미 라우센부쉬와 함께 언급한 것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사회 복음 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 하나를 고르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일 것입니다. 이제 사회 복음주의자들에 관한 한, 라우센부쉬도 포함되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와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것과 많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왕국에 속한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또한 거기에서 사회의 변화로 나아가 사회와 문화를 하나님의 왕국의 우산 아래로 되돌려 놓습니다. 사회 복음주의자들이 관심을 갖는 한, 그것이 속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찾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것의 한 면은 사회적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다른 면은, 죄송합니다, 동전의 한 면은 사회 개혁입니다. 그리고 동전의 다른 면은 정치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회 개혁, 정치적 행동은 양면이 있는 동전과 같아서 동전을 반으로 나눌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없고, 이런 것들의 반을 가질 수 없습니다. 둘 다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 개혁과 정치적 행동 사이에 왕국의 사역의 징조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국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세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사회 개혁과 정치적 행동입니다. 우선, 정부입니다. 정부를 살펴보면 정부에서 왕국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징후가 보입니다.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독교인은 아니더라도, 그들은,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들은 실제로 왕국의 결과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 곳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물론 상업과 사업입니다. 상업과 사업, 이것들은 신학자와 사회 복음 신학자들이 상업과 사업에 그들이 무엇인지, 공동의 선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 이야기했던 것 같지만, 세 번째는 라우센부쉬에게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가족의 삶입니다. 그가 보기에 가족 생활은 모든 것의 핵심이었고, 매우 강했고, 우리는 그의 가족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매우 강한 가족 생활은 일종의 왕국 사회의 기초입니다.

정부, 사업, 가족 생활이라는 이 세 영역은 Rauschenbusch에게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종류의 커뮤니티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전에 언급했듯이, 그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여 신의 왕국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모델로 Rochester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Rochester는 그가 돌아온 후 남은 평생 동안 이 도시가 모델 도시가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칼빈의 제네바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예요.

사회 복음 신학에 대한 두 번째 사항은 인간의 완전성입니다. 사회 복음주의자들은 인간의 완전성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복음주의자들은 종교 개혁 이후 기독교의 빠른 움직임으로 볼 때 이것이 분명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종교 개혁 이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기독교가 움직이고 발전하고 형성되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특히 미국 생활과 문화에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미국 생활과 문화의 기독교화가 정말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의 완벽성의 징조입니다. 이제, 저는 2세대 사회 복음주의자들이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라우센부쉬가 여전히 복음주의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는 인류의 완벽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죄성도 인정했습니다. 라우센부쉬는 여기서 뉘앙스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부분을 잊은 듯하고, 인간의 완벽성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복음의 신학이 실제로 이런 완벽성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좋아요, 세 번째, 사회 복음의 세 번째 종류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는 누구와 연합하는가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 대문자 C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누구와 연합해야 합니까? 교회는 누구 편에 서야 합니까? 글쎄요, 사회 복음주의자들은 교회가 노동계급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노동계급 편입니다. 사회 질서가 변혁되고 문화가 구원되려면 노동계급의 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교에서 나오는 종교적 힘과 도덕적인 힘이 노동계급의 일, 직업, 노동계급의 사역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쇄신하고 사회 질서를 쇄신할 사람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걸 통제하는 사람은 누구죠? 글쎄요, 교회는 노동계급 편에 서서, 노동계급 편에 서서, 노동계급을 지원함으로써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노동계급의 사역, 일의 일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해야 해요.

이제, 이 지점에서 사회 복음주의자들은 개인적 죄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그것을 어느 정도 놓아두었지만, 우리는 나중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적 죄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사회 복음주의자들은 일종의 기업적 사악함에 대한 경종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사악함, 기업의 사악함, 그리고 체계적인 사악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빈곤, 억압, 불의, 인종차별 등과 같은 것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교회의 일이라고 느낀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기업과 체계적인 사악함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복음 신학을 발전시키기 시작할 때, 특히 라우센부쉬로부터, 그것은 신학의 일부입니다. 이제 신학을 마치기 전에, 저는 이것과 라인홀트 니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할 것이므로 오늘은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발전하면서 세 가지 정말 중요한 신학적 어려움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세 가지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B, 사회 복음 신학에 있습니다. 이제 신학을 조금 살펴보았는데, 그 신학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그 신학, 사회 복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좋아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이 예수님의 왕국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는 정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왕국 메시지는 사회 복음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했지만, 그들이 왕국 메시지를 절대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국이 정치적 왕국이라는 암시조차 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왕국에 대해 말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정치적인 방식으로 왕국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정치 세력에 맞서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광신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된 초점이 하나님의 왕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해석학은 올바르게 표적을 맞추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사회 복음 운동이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세대로 넘어가서 죄의 현실, 개인의 반항, 개인의 죄,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 라우쉬와 부시가 여전히 믿고 여전히 긴장 상태에 두었던 모든 종류의 것들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일단 당신이 그런 것들을 놓아버리기 시작하면, 사회 복음 운동은 반동적 운동이 됩니다.

항상 정의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경건주의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국 기독교의 경건주의적 경향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에 반발하면서 성경과 기독교의 매우, 매우 중요한 신학적 문제에 반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동에 대한 두 번째 종류의 비판입니다. 저는 그것이 무언가를 위한 것이어서 기쁘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 세대는 그들이 인식하는 경건주의에 대한 반동적 운동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이제, 에반스는 이 세 번째 것에 대해 강하게 주장할 테니, 여기서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에반스를 읽을 때 이것을 찾아보세요. 하지만 많은 사회 복음 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서양 문화의 발전과 연관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 복음주의자들은 매우, 매우 문화적으로 얽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가 발전하면, 그들은 그것을 신의 왕국이 발전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신의 왕국과 서양 문화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라우센부쉬 이후의 많은 사회 복음주의자들이 그 차이와 그 독 특성 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왕국을 서구 문화와 연관시키려 한다면, 당신은 비서구 문화에 대해 어떤 종류의 비판을 할 것인가요? 당신은 비서구 문화에 대해 얼마나 비판적일 것인가요? 당신은 비서구 문화에 대해 얼마나 포용적일 것인가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왕국을 서구 문화, 서구 문화의 발전과 연관시킨다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에반스가 그의 책에서 강조할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는 사회 복음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네, Hannah? 맞아요, 네, 그는 그렇습니다. 그는 사회 복음의 아버지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마도 가장 영향력 있고 그보다 약간 앞선 사람은 워싱턴 글래든이라는 사람입니다. 글래든은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에서 사회 개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Rauschenbusch가 등장해서 그런 발언을 더욱 응집력 있는 신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사회 사상과 로마 가톨릭 사회 사상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 전에 그가 일종의 위계적 교회 구조에 대해 약간 비판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민주적, 민주적 문화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침례교와 감리교 등의 회중적, 더욱 회중적인 문화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쁘고, 그는 혁신적인 사람입니다. Rauschenbusch는 그렇습니다. 그는 다양한 것에서 이것을 얻고, 아시다시피,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의 성경을 열었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개신교를 위해 이것을 모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톨릭 사회 사상을 알고 있지만, 개신교 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이 사회 복음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그는 에반스가 말했듯이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는 매우 미묘합니다.

그는 개인의 죄, 개인의 구원, 개인의 거룩함, 신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아시다시피, 우리는 체계적 악에 대해서도 뭔가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미묘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가 언급했듯이 드와이트 L. 무디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노스필드에서 열린 예언자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와이트 L. 무디로부터 사회 복음을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조금 도움이 되나요? 에반스도 이런 영향 중 몇 가지, 특히 워싱턴과 글래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라우센부시와 이런 종류의 사회 복음 신학에 대해서도요.

물건. 알았지? 다 준비됐어? 응. 그는 찾고 있어, 그게 더, 그는 성화 교리나 거룩함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웨슬리만큼 엄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 꽤 높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종의 과정을 거쳐 거룩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신이 희망하는 것을 믿었고, 발끝으로 서는 것과 같은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런 종류의 성화하는 완벽함이 온 세상에 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그런 면에서 거의 밀레니얼 이후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그가 쓴 두 번째 책에서도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을 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완벽성. 그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죽었는데도 그걸 믿으며 죽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다른 뭔가나 신학적인 것. 이걸로 괜찮게 지내고 있나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제국주의 세력들.

제국주의적 또는 식민지화 세력. 즉,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그가 보기에 모든 나라는 그 죄를 공유합니다.

모든 나라는 이웃을 지배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독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국가는 그 만연한 악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국가에 대해 그것을 인식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도움이 될까요? 다른 게 있을까요? 글쎄요, 5초 휴식을 취하세요.

그리고 C를 하죠. 좋아요. 제 생각에 사회 복음이 실제로 한 공헌 중 하나는 기독교가 사회와 사회적 관심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가져온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회와 사회 정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미국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피니가 복음적 관심사와 함께 사회적 관심사를 강조했지만, 그의 뒤를 이은 사람인 무디, 드와이트 L. 무디는 위대한 전도자이자 위대한 부흥사였지만, 개인에 대한 훨씬 더 경건주의적, 개인에 대한 경건주의였습니다. 무디는 미국 기독교, 특히 미국 개신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복음의 개인화는 미국 생활에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Rauschenbusch는 Northfield에서 예언자 회의에 가고, Dwight L. Moody를 알고, 등등을 통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복음 운동의 좋은 기여 중 하나는 사악과 죄의 기업적 측면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사회적 불의가 드러났을까요? 저는 사회 복음 사람들 덕분에 드러난 다섯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첫 번째로, 드러난 첫 번째 것은 물론 자본과 노동 사이의 매우 나쁜 노동 관계였습니다.

소유자와 노동자 사이의 끔찍한 근무 관계. 사회 복음 운동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여기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놀라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언급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불공평한 임금입니다. 사회 복음주의자들, 우리가 얼마 전에 왕국 형제단을 언급했던 걸 기억하세요, 왕국 형제단. 왕국 형제단은 불공평한 임금을 밝혀냈습니다.

세 번째는 물론 열악한 근무 환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는 불공평한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Rauschenbusch 시절 사람들은 하루에 14, 16시간, 때로는 일주일에 7일 일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 시도해 보세요. 일주일에 7일, 14시간 동안 직기 앞에 서 있다면, 당신은 꽤 나쁩니다.

불공평한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은 네 가지 모두를 요약한 것이지만,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곤경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곤경.

사회 복음주의자들의 인정은 이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매우 부유한 사람은 매우, 매우 적고, 그들은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그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이제, 이 다섯 번째 요점에서, 여러분은 이것을 에반스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요점에서.

라우센부쉬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할 말이 있을까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도록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이 복음의 일일까요? 그것이 목사의 일일까요? 그것이 목사의 일일까요? 그것이 교회의 일일까요? 부유한 사람들이 기부하도록 설득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돕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를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만의 세계에 너무 고립되어 있어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런 면에서 영국의 노예 무역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영국의 노예 무역에 대해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 그들은 어떻게 영국의 노예 무역을 마침내 극복했을까요? 글쎄요, 그들은 노예 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노예 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준 작은 클립, 우리가 그것에 대해 보여준 작은 비디오를 기억하시죠. 그게 한 가지입니다. 좋아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사회 복음은 삶의 개인적 측면이나 종교가 아닌, 삶의 기업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위입니다. 좋아요, 2위입니다.

사회 복음 운동은 미국의 주요 지역과 미국의 주요 그룹이 신학과 윤리를 공부하도록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영향을 미쳤고, 신학교에 영향을 미쳤고, 대학에 영향을 미쳐 이런 종류의 것들, 신학과 윤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는 교파적 경계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침례교나 감리교, 또는 회중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신학과 윤리에 대한 연구는 교파적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기독교 생활에서 다양한 교파를 하나로 묶는 좋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신학교에도 해당되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파 전체가 사회 사역 사무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파가 사회 사역을 일종의 성경적이고 신학적 프로젝트로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 그것은 사회 복음 운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많은 제도적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학교, 탁아소, 주택.

하지만 그들은 많은 병원을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관 생활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지만, 기관 생활은 무엇보다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그곳에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좋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탁아소, 병원, 학교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돕는 것. 2년 전쯤에 텔레비전에서 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회 사역을 교회와 종교 단체 등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정말 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분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하려는 이 사역을 방해하는 교회들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들을 여기서 없앨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좋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교회는 이 일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난 20년 동안, 그들은 탁아소와 병원 등을 시작하면서 물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완전한 무지에 직면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의 무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신앙 기반 집단을 일에서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미국이 보육원, 학교, 병원 등이 풍부한 이유는 정부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풍부한 것은 정부가 그런 것들을 제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 생활과 문화의 역사에서 교회가 사람들에 대한 연민에서 그런 것들을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탁아소를 가지고 있고, 병원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관을 가지고 있고, 등등.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글쎄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룹 중 하나는 사회 복음 운동입니다. 그것은 그저 사회 복음이 아니었고, 그들이 가진 철학적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실천에 옮겼고, 그런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미국의 문화 생활에서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주로 이런 사람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 그것은 미국 기독교에 대한 무지이고,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제공한 도움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 복지 서비스가, 당신이 그것을 부르고 싶은 대로, 사회 복음 운동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복음 운동은 또한 교회의 선교 사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면서,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들이 사역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사회 복음은 대학, 신학교, 설교단, 교회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고 사람들은 선교 사업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업은 농업 선교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농업 선교, 의료 선교, 교육 선교입니다.

그래서 농업, 의학, 교육 분야에서 선교사의 사역에 대한 그런 종류의 기업적 이해는 주로 사회 복음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괜찮지만 농업, 의학, 교육 사역과 함께합니다.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전체 신학은 사람들을 다룰 때 그들 자신을 사람으로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들을 영적으로만 대하는 경우, 당신은 그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육체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 의료적 필요, 농업적 필요, 교육적 필요를 인식할 때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사람으로서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당신이 하는 일이 그저 육체적으로 그들을 돕는 것뿐이라면, 당신은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영적으로 돕지 않는 한, 당신은 그들을 사람으로서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붙잡고 싶어하는 전체론적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복음의 사람들은 선교 사업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그들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런 종류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돕습니다.

그래서,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에서 사회 복음 운동의 기여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교회, 대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신학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기여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15번째 강의, 미국의 사회 복음. 여기에 질문이 있나요? 질문이 있나요? 미국의 사회 복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Rauschenbusch,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라우센부쉬의 전기를 읽어 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네, 사실 사회 복음 운동에 대한 반응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라우센부쉬가 전파하는 메시지에 2세대, 3세대, 4세대 사회 복음주의자들이 충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교파가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파 내에서 사회 사역에서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계급 간 분열이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멀리가 너무 멀리인지 또는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신이 얻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항상 이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몇몇 운동을 가지고 있었고, 이 전체 운동의 일부인 구세군은 확실히 그 중 하나였습니다. 퀘이커교도는 퀘이커교도에게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로 계급에 분열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주의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다른 것들 중에서도 사회 복음 운동에 대한 일종의 반응이었습니다.

의 다른 질문 ?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좋아요,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시작하고 수요일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15페이지 맨 위에 있는 16번 강의 입니다. 이건 16페이지 맨 위에 있는 16번 강의 입니다 . 좋아요, 여기 있습니다.

강의 번호 16, 신정통주의와 사회적 위기. 신정통주의와 사회적 위기. 좋아요, 여기에는 긴 배경 지식이 있고, 신정통주의와 사회적 위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여기서 다 끝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시작해 봅시다.

좋아요, 우선, 네오-정통주의, 새로운 정통주의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를 내려보죠. 이제, 라벨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야겠습니다.

라벨은 사람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그냥 상자에 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수업에서 사회적 복음과 같은 라벨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상자에 넣고 싶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신정통주의, 새로운 정통주의. 새로운 정통주의는 20세기, 주로 20세기 신학자들로 구성된 그룹으로, 성경에 헌신합니다. 그들은 성경 메시지에 헌신합니다.

그들은 성경 메시지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개신교 자유주의가 그 성경 메시지를 약화시켰다는 것을 압니다. 개신교 자유주의는 극단적인 성경 비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경 메시지를 정말로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성경 메시지 없이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를 성경 메시지와 그 메시지의 강점으로 되돌리고 싶어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 첫 번째 것, 이 정의, 질문은 이 새로운 정통교회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어떤 렌즈를 사용할 것인가요? 우리는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들은 경전을 해석하는 렌즈로 종교 개혁을 사용할 것이고, 특히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존 칼빈을 사용할 것입니다.

칼빈은 다른 개혁자들 사이에서 그 사람이 될 것이지만, 칼빈은 그들이 20세기의 성경적 메시지의 위대함과 영광을 이해하도록 돕는 데 사용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정통교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첫 번째 대각성 때의 방식이나 청교도 때의 방식이 아니라, 당신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미국 기독교 경험으로 다시 가져온 칼빈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게 칼빈주의의 세 번째 물결이겠죠? 청교도에서 처음 보았고, 그다음 첫 번째 대각성에서 보았고, 그다음 새로운 정통교회에서 다시 보았기 때문입니다. 청교도주의나 첫 번째 대각성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일종의 신학으로서의 칼빈주의가 여기서 다시 고려됩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통파 사람들은 미국이 미국 기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개신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여전히 어떤 의미에서 그들만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통파 신학자들은 미국 기독교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으며 이 분열에 큰 격차가 남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그 분열의 왼쪽에, 그러니까 당신을 마주보고 있는데, 이것은 오른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분의 왼쪽에는 개신교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많은 신 정통파 사람들에 따르면 개신교 자유주의는 거의 파산했습니다. 개신교 자유주의는 약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개신교 자유주의가 있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고, 거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주의와 복음주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훨씬 나중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오른쪽에는 19세기 말에 시작되어 20세기에 들어와 매우 강해진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근본주의입니다. 이제, 우리는 근본주의에 대해 나중에 강의할 테니 여기서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근본주의는 오른쪽에 있고, 신이 당신을 축복하고, 미국 근본주의는 새로운 정통 신학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약속대로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근본주의는 너무 엄격했습니다. 너무 컬트적이었습니다.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가 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좋아요, 새로운 정통 신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틈을 남겼어요.

그것은 미국 기독교에 큰 격차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두 가지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유주의적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근본주의적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느 쪽이어야 할까요? 새로운 정통 신학자들은 전략을 가지고 등장하는데, 그들의 전략은 자유주의와 근본주의에 반감을 품은 미국 생활 속의 광범위한 중산층 개신교도들에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호소합시다. 그들이 할 호소는 무엇일까요? 호소는 우리가 건전한 성경 신학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신학을 매우 신중하게 처방된 지적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통 신학자들 사이에서 지성, 정신의 삶에 대한 진정한 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사용하여 성경을 비판적이고 신중하게 해석하고 싶어하며, 그 호소는 어떤 의미에서 승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통주의가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호소로 새로운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특정한 일들이 계속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더 넓은 문화에서 일어나도록 허용한 네 가지를 언급할 것입니다. 좋아요,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과학적 자유를 허용합니다.

모든 진실은 신의 진실입니다. 그것을 따르세요. 과학자들은 그들이 발견하는 곳마다 진실을 따라야 합니다.

과학은 종교의 적이 아닙니다. 과학은 종교의 적이 아닙니다. 종교와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 개신교의 중간 단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것이 1위입니다. 2위, 그리고 여기서, 이것은 약간 문제가 되지만, 그들은 성경 비판을 허용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비판을 다루는 방법은 그것을 지적으로 다루는 것이지, 항상 기독교에 맞서 싸우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비판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주의자들이 성경 비판에 대해 너무 느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근본주의자들이 성경적 비판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좋아요, 세 번째, 그들은 도시 문화의 발전을 허용하고 실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달리지 않는다. 이것은 도시 생활의 도전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새로운 정통주의 운동이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과 아무런 상관도 맺고 싶어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에 악한 것이었고, 새로운 정통 신학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시 생활의 자유를 허용하고, 교회가 어떻게 문화와 도시 문화를 포용하고 도시 문화에 봉사할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은 허용했고 실제로 비판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미국 공공 생활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 대해 매우 무겁고 매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 생활의 구조, 정치적 구조, 경제적 구조, 사업 구조 등에 대한 비판, 경제적 비판, 사회적 비판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대한 비판을 허용했고 그들 스스로 그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럼, 며칠 동안 New Orthodoxy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들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것은 미국 기독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저 그린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0, 미국의 사회적 복음, 2부입니다.